

환 영 사

- 공존과 상생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

자 승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만추의 계절입니다. 청명한 기운과 선선한 바람이 한 해를 차분하게 돌아보게 하고, 마음까지 풍요로운 마무리를 이루라고 알리는 듯합니다. 이렇듯 나눔으로 풍성한 절기에 민족의 통일을 고대하며 노력해 오신, 종교계와 복지관련 분야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광복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시간동안은 우리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영광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참화 속에서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한꺼번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는 칭송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해결하지 못한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알고계시는 민족의 평화통일일 것입니다. 지난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분들이 화해와 분단을 극복하고자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최근의 남북의 정세는 과거 냉전의 시대를 연상시키는 극단적인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생존의 수단이라며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실험하며 우리와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또한 우리와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봉쇄와 제재로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순수한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본의가 왜곡되어, 자칫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 휩싸이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염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계는 자비와 사랑, 평화를 가치로 활동해 왔기에 민족이 또다시 1950년도와 같은 비극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냄과 질투’가 없으면 곧 일체 중생이 서로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족의 평화를 위한 최우선의 명제인 평화를 위해 우리 종교계가 할 수 있는 각각의 역할을 다시금 기본에서부터 성찰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우리 종교인들이 해야 할 꼭 필요한 역할이라 봅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화해와 교류협력을 위한 지난한 시간과 노력의 축적에서 찾아오는 결과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직 좀 더 많은 정진의 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불교를 비롯한 종교인들의 활동으로 신뢰와 관계증진에 노력해 왔기에 이러한 인연이 결실을 보태고, 오늘과 같은 뜻 깊은 자리로 인해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따뜻한 바람이 넘쳐 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